

## 우한폐렴(코로나-19)정부간섭 너무 심하다

공적예배란 보이는 방식의 예배이지, 사이버교회의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다.



▲ 2020년 3월 어느 날로 기억될지 일상이 될지... 근본적인 대책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갈변의 저항론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고유한 독립성을 위정자가 해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교회는 혼돈에 빠져 들었다. 현재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돌고래가 쉽지 않다. 교회 내의 분분한 모습도 한편 이해되지만 정부정책에 관한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나 된 교회로서 의지전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소하거나 연기하고,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서울의 대형교회를 비롯해 주요 교회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나오면서 교회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교회 등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보내는 공문을 받아 든 지 교회는 "예배 자제(모임 자제)" 표현이지만 예배자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탄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신전지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 취급하는 것 역시 종교탄압의 사례가 될 것이다.

### 총회나 기독교연합단체에서는 이 사태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표시

왜냐하면 실제 대구지역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교회가 절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3월 6일자 교회협동신문 - 코로나-19, 교

회 재정을 압박하다) 또한 목회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우한 폐렴(코로나-19)예방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는 특단의 대책이 분명한 때이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대책으로 조금씩 개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고 사이버, 영상으로 미온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예베소교회(계 2:5)에게 책망하신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촛대를 옮기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 성경과 역사적 신앙고백을 가지고 바른 신학과 바른신앙으로 교훈

또한 대신 총회는 대신총회 헌법에서 명시된 신앙과 생활의 제 1기준이 성경과 역사적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과 생활의 제 2기준으로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대신총회는 역사적 신앙고백을 가지고 바른 신학과 바른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훈하고 인도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 공적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다.

공적예배는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공교회의 온전한 예배는 '회중'이 필수적이다. 회중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으며,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교회 특히 대신총회 가운데 성경과 역사적 신앙고백의 바른신학과 바른신앙을 교훈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 지키는 일과, 세상에 불어닥친 생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 사이에서 교회는 이 사화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 못지 않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영혼과 신앙의 길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강영철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예배에 대한 입장

대신총회신학교 김향주교수



김향주 총장  
대신총회신학교

코로나 19의 확산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마비되어 갈 뿐 아니라 국제간의 외교 문제까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병마에 관한 사건은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개념에서 사고를 요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생사는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취되어가고 있는 역사의 축은 성경적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나에 따라 역사의 축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한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미국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과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의미를 상고하곤 하였다. AIDS가 창궐할 때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미국에 저주의 병이 떨어졌다고 외쳤다.

우리는 우선 공산권 아래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며 선교사들은 압제한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강타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에 관한 문제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면에 계속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도사고시 공고

△일시: 2020년 4월 20일(예비교육)~21일(고시)

△접수: 2020년 4월 1일(17일 소인까지 인정)  
 금번 고시는 편목고시도 포함되어 추후공지 없음

△문의: 해당자, 노회는 고시응시자들에게 착오 및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해주시고 총회사무국으로 문의바람. 전화 : 010-2240-05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강대석 목사

고서부장 오세종목사

###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7 신앙과 삶 8 전면광고



담임목사 강대석



청운교회는 '적절한 사랑이 있는 교회, 축제가 있는 교회, 복음의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두 날째로 비상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교회지는 10여 여 사도. 생애 전 단계 사역에 대한 소망과 대안을 제시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목사: 김대석)

- 청운 핵심가치
1. 예배 - 주일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2. 전도 -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전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3. 섬김 -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섬김을 기쁘게 여깁니다.
  4. 상호협력 -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5. 영성생활 -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영성생활을 기쁘게 여깁니다.
  6. 선교 -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선교를 기쁘게 여깁니다.
  7. 헌신 -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헌신을 기쁘게 여깁니다.
  8. 순종 -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순종을 기쁘게 여깁니다.



주 소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번길 4  
 >>> 경인교대 6번출구  
 연락처 032)544-2341  
 F A X 032)543-0182  
 홈페이지 www.cwch.org

청운교회  
 CHUNGWON PRESBYTERIAN CHURCH

# 성명서 | 한기총 전광훈목사의 구속은 국민권리를 구속한 것이며 종교탄압이다.

## 대신총회 강대석 총회장의 2850명 총회 대의원 일동

[https://youtu.be/5eYf0fXr\\_Ik](https://youtu.be/5eYf0fXr_Ik)



▲ 대신총회장 강대석목사, 서기 김종우목사

### 성명서

한기총 전광훈목사의 구속은 국민권리를 구속한 것이며 종교탄압이다.

예장 대신총회의 설립자이신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선 목사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애국자이셨다. 그는 삼천 리강산 이만팔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하셨다. 민족복음화 애국운동을 하나로 여기시고 매일 12시 정오가 되

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다. 그분이 예장 대신교단을 설립하시고 그의 애국정신과 민족복음화의 정신은 대신교단 목회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전광훈목사이다.

전광훈 목사의 연설에는 애국정신과 복음통일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

신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국민의 생각과 사고를 깨워서,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장에서 부르짖었고 그 결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광야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검찰과 사법부는 오래전 전광훈 목사 발언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소명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하였다. 이번 우한 폐렴의 혼란 속에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과 광장의 집회를 덮어 버리고 전광훈목사까지 구속하는 일을 진행한 것이다.

구속의 사유로 적시한 도주 우려는 종교인으로 공신력 있는 기독교단체장이며 수천성도의 대표인 당사자를 시정잡배로 취급하여 해당 단체와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기독교교회를 심각하게 모욕한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낙장 대응에 대한 정치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강대석)는 전광훈목사의 구속적 부심까지 기각하고 구속을 확정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과 사법부는 전광훈목사의 건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서 한국교계와 목회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목회자여 부끄럽지도 않은가? 광장에서 부르짖었던 그들은 한국교계와 목회자들이 품어야 할 양들이 아닌가?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 한국을 꾸미는 그들을 목회자가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2.29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강대석목사의 2850명총대의원 일동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예배에 대한 입장

1면에 계속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전혀 자신과 관계가 없는 문제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느1장).

둘째, 교회와 국가를 위해 어떻게 자세를 취하며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였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통회하는 회개를 해야 할 때이다. 8.15 해방 후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 원인은 너무나 현실의 변영주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에서 성경교리를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가 교리로 점철되어 있다. 이 교리교육을 등한시 한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예배를 교리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시대를 넘어 성경 교사 시대이다. 성경 교사시대는 성경 강해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중심이 성경 교리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를 위한 기도운동과 정치가들을 위한 도덕적 충언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경건해야 한다. 그럴 때 정치가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나아가 북한의 사악한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오직 기독교 신앙고백의 교리이다. 이 교리교육이 각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19의 사건으로 교회의 예배가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과 예배 모범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일의 공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시며 특별히

구별되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다. 이 주일의 공적인 예배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시공간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5항을 보면 이 주일의 예배는 절대 어느 형편에서든지 양보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혼란이나 병마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엄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정치적 제도상 교회와 국가는 정교분리(政教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제도상의 분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론으로 볼 때는 하나의 전철을 밟아 간다는 뜻이다. 만약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교회는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국가의 회복을 위해 모든 일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 지원을 물론 총칼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19의 문제로 교회와 국가 간의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 사항을 서로 준수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참조). 만약 국가나 교회가 생명을 관한 위기에 처할 때 예배를 준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가능한 한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너무 가볍게 처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와 소독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위나 성도들 사이에 환자가 생길 경우 격리하여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준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 예배나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준행하게 될 경우 절대 시간 엄수와 함께 공동 예배를 준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에 대한 불경건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대신총회신학교 총장 김항주 목사

# 야구 스타 출신 박노준, 안양대 제11대 총장 임명



박노준 안양대학교총장

인 강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총장직을 수락했다"며 "전체 구성원들을 강력한 원팀으로 만들어 글로벌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총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스포츠산업학 석사와 벤처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1년 우석대에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선린상업고등학교 시절 투타에 걸쳐 걸출한 기량으로 고교야구 인기몰이를 하며 이름을 날렸고, 고교시절부터 성인대표팀의 일원으로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활약으로 국위선양을 했다.

프로야구선수 은퇴 후 미국 MLB 뉴욕 메츠와 토론토에서 코치로 활동했고, 야구선수로는 최초로 우리 히어로즈 부사장급 단장을 맡았다. 야구 해설가, 대한야구협회 기획·마케팅 이사, 한국기원이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는 전·현직 국가대표 2만5000여명이 가입된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박 총장의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 등 국내외 여러 환경요인으로 생략됐다.

# 4월 4일 총회신학교 개강, 청파중앙교회 내 대강당 지난 10일 총회신학교 교수 회의에서 순항



▲ 총회신학교가 4월 4일 개강을 앞두고 순항하고 있다. 사진=총장 김항주목사

지난 2020년 3월 10일(화) 대신교회 협동신문 회의실(부천시 소재)에서 총회신학교 김항주총장과 총회신학교 교수진들이 총회신학교 개강 및 학사일정 등을 토론했고 결정하였다.

- ▲ **특수분야강의 건** - 선교학 교수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를 세워 현장 중심의 강의를 하기로 하다. 호주 선교사 박만경 목사(87년 대신교단 최초로 호주에 파송하여 현재까지 사역)를 추천 결정하다.
- ▲ **신학교 사무원 채용의 건** - 현 교수진에서 맡아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 **통장 개설의 건** - 총회에 통장개설을 요청하여 개인 통장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 ▲ **교단 장학금제도 안내** - 1) 교단 장

대학 측은 "교육 현장과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박 신임 총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과 창의적인 대학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연한 소통능력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학교의 내실을 다지면서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지역거점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신임 총장은 "안양대학교가 혁신적

**변역력-미네랄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19 매출급증☆

주염 9회 교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원장 고추장 주염수 히트상품

**인산죽염 송도대리점**

Tel. 010-9382-7790

**점장 백화자**

**인산의학 월간지**

구독신청서 무료보내드립니다.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

학금 (일괄적으로 이사장장학금 50% 지급) 2) 목회자 장학금 3) 기초생활자 & 탈북이주민 장학금 4) 근로 장학금 5) 성적장학금 5)리폼 드신학대학교 장학금으로 하다.

의 건 - 보직은 당분간 학교운영을 보면서 필요부서에 적임자를 선임하여 보직을 부여하기로 하다. 이러한 모든 결재라인은 총장이 이사회 보고 후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하기로 하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교수관리 및 강의 전반에 관한 책임은 교수부장 강영철 교수가 맡기로 하다.

△ **개강일시** - 개강예배는 2020년4월4일(토) 오전 11시 청파중앙교회 내 총회신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초청인사 및 순서는 추후 총회 임원회와 실무자가 준비하기로 하다.

△ **기타안건** - 학교발전과 총회발전을 위하여 타 교단과의 협의가 필요시 상황을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한편 대신총회신학교 교수회는 코로나-19로 공적예배가 위축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현상황에 대한 총장명령의 성명서를 교단지에 기고하기로 하고 참가한 한 교수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모든 교수진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모집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대신교회협동신문**

발행인 강대석 대표 최중환 주필 박근상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편집국장 강영철 광고국장 김용범 영업국장 이창복 인쇄인 이병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경기도 31시군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께



**이재명**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 및 시설 전수조사, 민관 행사 취소, 노인 등 집안사실의 예방적 조치로, 특히 중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등 중점적인 일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입니다.  
 이종 종교행사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원 확산으로 지역교회 및 집회 참여 사색도 나타나고 있으나, 방역이 보장되는 종교활동자의 자유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경기도 및 자치단체의 감염원 포착과 전염을 통제 하고 및 전파를 예방하고 유교 인입장소와 시설을 관리하고, 교회 중 2,847곳은 가정예배를 통하여 주일예배 전체 교회의 56%에 해당하는 2,806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종교인 여러분, 종교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진행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주말, 이 지사로 말미암아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짝 화제가 된 "도지사의 코로나19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및 의견수렴"에 대해 경기총과 31시군 15,000교회 목회자들과 350만 성도들은 도지사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나 탄압이 아닌가하는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3월 9일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의 최대 피해 광역시도인 대구(확진자 5571

명)와 경북(확진자1107명)도 아닌,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에서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할 종교의 자유 문제와 그리고 관련법 시행령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라는 기본권 침해행위를 종교계와도 사전 대화도 없이, 공식적인 경기도정의 절차도 없이 주말에 도지사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민을 넘어 마치 전국민을 상대로 무슨 의견을 수렴한다고 올린 기막힌 글

은 그동안 방역과 예방치료 활동에 전념하던 민생 도지사가 아닌 또 다른 정치 도지사의 과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기사화된 것처럼 정세균 총리의 "확산추진"주장과 박능후 장관의 "확산속도추진"주장과 달리 이재명 도지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새로운 코로나 컨트롤타워가 되어 공격적 여론 수렵이라는 SNS 정치적 행위를 하여 종교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예배방해죄에 해당되어 형법에도 저촉된다고 봅니다.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종교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고민하는 종교집회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아래 창구를 통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전달해야겠지요.

● 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의견수

렴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590186124356524&id=100000955155655](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590186124356524&id=100000955155655)

●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담당과  
 도지사비서실(031-8008-2001, FAX 031-242-4801)과 문화종무과(031-8008-3626, FAX 031-8008-2539) meehyune@gg.go.kr 에서 의견수렴.

그런데 한가지 더 실망케하는 것은 3월3일(화) 경기도청의 지도하에 도청과 31시군 지자체에서 동시에 지역교회로 보내온 협조공문에 대해 경기총과 31시군 지역교회들이 적극 협조하여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여 3월8일(주일) 교회내 철저한 방역과 교인관리를 하던중에 3월 7일(토) 전국발 SNS의 견수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기총과 31개 시군 연합회와 15,000 지역교회들은 도지사와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불신감을 가지며 주일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5,000교회는 도지사에 의견수렴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정치 포퓰리즘이 아닌가요?
-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종교의 자유 침해와 탄압이 아닌가요?
- 정부여당의 대응 예측과 도지사의 판단 대응은 서로 다른가요?
- 이재명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검토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요?
- 31시군 지자체청들과 금번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31시군 기독교연합회 15,000교회에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속에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0.3.9  
 경기도를 사랑하는 31시군 교회 목회자 및 성도 일동

## 코로나 - 19와 주일예배에 관하여



임문길 목사  
 말송교회 담임

침받게 된다고 자기 생각을 믿음의 말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우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럼으로 기독교인은 비 기독교인과 공동체라는 바로 이해하고 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주일대예배라도 가정예배나 영상예배로 드림도 무방하다 하겠다.

### 2. 코로나19 전염병과 주일성수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주일대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금번에 신천지교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교회가 비상이 걸렸다. 이에 다른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오락 시설 체육시설 심지어 직장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모두 폐쇄조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대예배는 공적인 예배이기에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도체크를 하고 건강하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으로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들은 전염병이나 국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시위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하겠다.

### 3. 코로나19 전염병을 징벌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용하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을 단순한 전염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보아 인

류에 대한 징벌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중심을 둔다면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단순한 전염병의 사건으로 주일대예배의 가부라는 관점과 확산방지를 위해 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 순응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감히 주관적인 생각을 기술하면 가장 큰 죄악이 성령 등,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질서와 자연법칙을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명으로 기독교인들을 죄악시 여기는데 있다.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까지 합법화 되고 기독교로 변성한 대한민국까지 이러한 만행이 자행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막기 위해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청와대앞 광야교회에서 사명감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한국교회가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 사며니즘, 무속신앙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자, 이긴 자, 택함 받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남은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 글을 맺고자 한다

믿음의 사람은 코로나19 전염병에 관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죄악된 인간에 대한 징벌과 종말에 나타난 징조로 보아 철저히 회개함과 국가에서 신천지교회로 인하여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조치로 교회의 예배에 대한 취소 및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주일대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일도 배제하고 주일대예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교회실정에 맞게 자원하는 자들로 예배에 참석하도록하여 국가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코로나에 걸리면 목사와 교회의 생명은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어느 골방에서 드러진 기도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울어대는 짐승의 소리.. 제의의 짐승 잡는 피비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년되며 리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제사를 폐하시듯, 우리의 가장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 하셨나..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멈춘 후에야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온갖 더러움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장사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버무려진 것들을 사고팔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으로 가득차고 교만함과 높아지려하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찬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 없듯이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으시대는 모습.. 다스려야 할 자 연을 나만의 편함과 이기주의로 서슴없이 파괴해대는 자들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나라도 역겨울 것 같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산체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부르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함은 주께서 토해내고 싶으셨을 구역될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의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주도에서 한 성도가

## 주시는 분 - 하나님, 성도 - 성숙이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제 1기준 역사적 신앙고백은 신앙과 생활의 제 2기준으로 고백한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3항.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영외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공적예배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다. 또한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주일예배 이다. 또한 주일 성수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씀한다. 그리고 공적예배. 예배의 부름, 축도로 구성된 것이 공적예배. (웨민 20장 5항 - 예배의 요소 5가지 : 기도, 찬

송, 설교, 헌금, 축도)이다. 사적예배는 예배라는 용어보다는 모임, 기도회, 등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수요기도회 등이다.

연일 "지자체는 예배를 자제하여 가정예배로 드리라, 또한 주민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불안하여" 라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국가의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저항할 수 있다. 신앙적 양심대로 이 신앙적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그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저항하는 것.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갑니다. 감영철목사

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성도 역시 특별한총이다.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회는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갑니다. 감영철목사

# 지난 1월20~23일까지 미주노회에서 개최한 개최한 김치선 포럼의 이모저모



총회장 강대석 목사 - 대신의 정체성



서기 김중우 목사 - 설교



이정연 목사 - 설교



김향우목사 - 김치선박사와 목회



손다윗 목사 - 김치선목사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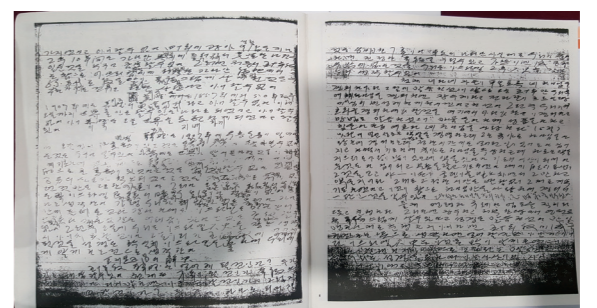
김은목 목사 - new life world mission



김상돈 선교사 - 김치선의 구령운동



유덕화 교수 - 김치선의 신학



포럼 단체사진(중앙), 포럼 통성기도(좌측), 김치선목사 유품원고(우측)

## 김치선 박사와 목회

편집자주 - 지난 1월 20~23일까지 미국 LA근교에 소재한 New Life World Mission센터에서 열렸던 고봉 김치선목사 포럼 가운데 김향우목사 '김치선박사와 목회' 를 요약한 것이다.

- 1장 남대문교회와 김치선 목사 | 2장 삼백만 부흥운동의 전개 | 삼백만 부흥운동에 대하여 평가
- 3장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 4장 6.25동란과 김치선 목사 | 5장 김치선 목사와 박태선 | 6장 일본선교 : 선교사로서 김치선 | 결론



▲ 청파중앙교회 담임 김향우목사 포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김치선

김치선 박사는 1899년 8월 10일 김영준씨와 최현숙 여사의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1968년 2월 24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김치선 박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쉼을 누리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김치선이 남대문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였으며,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김치선이 선택했던 결정과 부흥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박태선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과, 김치선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재일교포를 위하여 어떠한 선교사역을 하였는지를 살펴 보려한다.

### 제 1장 남대문교회와 김치선 목사

1944년 5월 일본에서 돌아온 김치선 목사는 서울에 있는 남대문교회의 제 6대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 당시 남대문 교회는 교동이 원활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리기 전에 전국에서 영락교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선생이 자주 출석하기도 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300만 구령운동을 남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일으켰다. 김치선 목사는 부임하면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였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였다. 김치선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한 뒤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

작했는데 이것은 1944년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척이나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새벽기도회를 쉬고 있었는데 김치선 목사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이 서울에서는 처음 시작된 새벽기도회였다. 김치선 목사는 그 암담하고 어수선한 시기에 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며 강단에서 엎드려 민족을 위하여 한 없이 울었다고 한다. 그는 매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때부터 그를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렀다. 김구 선생은, 김치선 목사가 시무하고 있었던 남대문 교회의 교인이었다. 따라서 김구 선생과 김치선 박사는 각별한 사이일 수밖에 없었다. 김구 선생은 매 주 한 번씩 김치선 박사를 집으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김치선 목사와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또 그의 아들 김신(金信)씨의 결혼식 때에도 그 주례를 김치선 목사에게 부탁하였다. 열심 있는 기도와 은혜로운 설교로 인하여 남대문 교회는 점점 그 교세가 확장되었고 마침내 남한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 해방된 기쁨의 눈물, 자기 과거에 대한 회개의 눈물, 우리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제, 한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남대문교회는 귀환동포들의 안식처이자 소식이 끊어진 친지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역에서 내려 찾아드는 그들에게 교회는 뜨락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 김치선 목사가 남대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삼백만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이만팔천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그의 남대문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박태선장로와의 관계는 그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였다. 2장 삼백만 부흥운동의 전개 1907년 대부흥의 물결이 2-3년 지나자, 부흥의 열기가 차차 식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제가 왕에 시작하였던 한국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니, 급기야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 병합하여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교회는 이때에 낙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일깨우면서 교회의 부흥운동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이 곧 100만명 구령운동이었다. 1909년부터 1910년간에 백만명 구령운동 (Million Souls Movement)이 전개되었다. 1909년에 개성에서 감리교 선교사 스톱스 (M. B. Stokes), 갬블 (F. K. Gamble), 리이드 (Miss W. T. Reid) 등 3인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

을 당기기 위해 사경회와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가졌다. 선교사들은 1909년 9월에 개최되었던 남감리교회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20만 명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하는 표어가 채택되었다. 그 후 바로 열렸던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 (The 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s)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 3인 선교사들은 전도 목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백만명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100만명 구령운동"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1910년 선천에서 모인 장로회 제 4회 독노회에서도 100만명 구령운동에 적극 참여기로 의결하고 이 일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 전도를 위해 남녀노소, 신자들과 학생, 평신도와 교역자들이 전심전력하여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전국의 각 교회가 연합하여 백만명전도회를 조직하고 각 지역 교회의 유력한 교역자들이 먼저 서울에 모여 1개월간 시내 전역에 축조 전도를 하고 전국 각지를 분담하여 계속 전도함으로써 많은 수확을 얻었다. 김치선 목사가 백만명전도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가 삼백만 부흥 운동을 일으키던 때는 1946년이였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인 혼돈기였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3천만이었으므로 십일조인 3백만을 정한 것이다. 한 달에 한번씩 초청 강사의 부흥회를 가

졌는데 박재봉, 손양원, 배은희, 김인서 등을 강사로 하여 금식과 철야기도 운동을 벌였다 (배명준 목사와의 대담, 1978년 8월 19일 재인용). 삼백만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중점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성령운동, 둘째 말씀운동, 셋째 회개운동이다. 당시 남대문교회 주일 학교는 교사들과 어린이 전도대원들은 복을 치고 나발을 불며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서울역 앞과 공원에 모인 군중들에게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지를 배포하였다. 청년들로 구성된 전도대원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공창지역인 목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장 폐지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1950년 5월 중순 6.25가 나기 한 달 전 남대문교회 청년들은 대다수가 대한신학교 학생들이었다.그들을 중심으로 삼 백만 부흥운동의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약 70여명의 전도대원들은 당시 공산당들의 출몰이 잦았던 38선 접경지대와 여수, 순천 반란사건으로 인하여 패잔병 공비들이 있던 지리산 지역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 복음전파의 사명감을 갖고 전도의 길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전도대원들은 6.25로 인하여 대부분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사대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의환 목사 6월 삼순경에 38선 지구에 파송을 받았다. 5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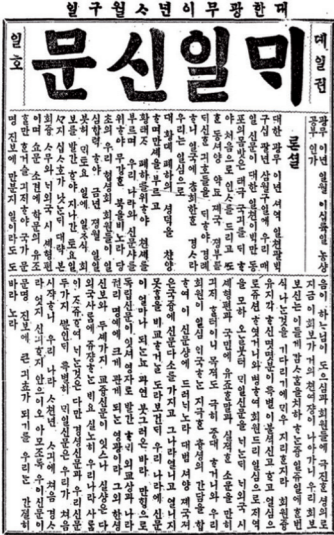
# [연재]이승만 시대(4) 언론인-혁명가 된 23세 국회의원

## 2. 혁명가가 되었던 개화와 청년 '급진적 언론인' 독립협회 행동대원으로 활동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에 이승만은 한글신문인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을 발간하면서 언론인으로 국민 계몽에 나섰다.

독립협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다. 당시 독립협회는 서재필, 이상재, 남궁억, 정교와 같은 개화파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들 밑에서는 이승만과 같은 배재학당 학생들이 행동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윤치호(尹致昊)가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 더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주의적인 단계가 되어갔다.



▲ 1897년 3월 10일 발행된 '문신일미'는 '독립협회' 창간호이다.

윤치호는 이승만 보다 10세 정도 위인 개화파 지식인으로서, 1884년의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였던 아버지 윤용렬을 따라 상해로 망명했다. 그리고는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세운 중서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테네시의 밴더빌트, 조지아의 에모리 대학을 다녔다. 다시 상해로 돌아온 윤치호는 중서학원 교수가 되었다. 그의 부인은 1882년의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함을 이끌고 한국에 왔던 마천종의 조카딸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개화파가 정권을 잡게 되자, 그는 부인과 함께 귀국했던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평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 때문에 부산 앞 바다의 절영도와 진해만을 해군기지로 조차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러시아의 야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는 만민공동회와 같은 군중집회를 열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개혁 압력을 넣었다. 1898년 3월 10일, 종로에서 제1차 만민공동회의가 열렸을 때 이승만은 가두연설로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는 총대의 원으로 뽑혀 정부에 대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급진파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1898년 11월 5일 마침내 고종은 독립협회 탄압에 나섰다. 우선 서재필을 미국으로 추방했다. 그리고는 이른바 '익명

서 사건'을 조작해 이상재, 남궁억, 양홍묵을 비롯해 17명의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共和制)를 도입하려 역적모의를 했다는 혐의였다.

회장인 윤치호는 몸을 피해 배재학당 구내의 아펜젤러 집에 숨었다. 이승만도 일단 그곳으로 몸을 피했다.



▲ 만민공동회 후로 잡혀(왼쪽) '익명서 사건'을 일으킨 독립협회 간부들(오른쪽)은, 만민공동회 당시, 서재필을 포함한 독립협회 간부들의 체포와 함께, 독립협회를 무너트린 개화파의 무능을 비판하고 개혁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는 만민공동회와 같은 군중집회를 열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개혁 압력을 넣었다.



만민공동회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이승만은 곧 밖으로 나와 수천명의 군중을 이끌고 경무청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체포된 독립협회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웠고, 이승만은 쉴 새 없이 연설했다.

이승만의 과격 행동으로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한 그의 아버지는 시위 현장까지 찾아와 그만둘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아펜젤러 박사도 찾아와 이승만을 말했다.

그때 고종이 태도를 바꾸어 개화파에 대한 유화책을 썼다. 체포된 17명의 독립협회 간부들을 석방하는 동시에, 개화파 성향의 민영환(閔泳煥)을 의정부 참정으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같은 독립협회 과격파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며 종각과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그러자 고종은 다시 강경책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1898년 11월 21일 정부는 '황국협회'의 보부상 패거리를 시켜 덕수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독립협회 회원들을 공격하게 했다.

보부상들의 공격으로 시위군중은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그들을 향해 자리를 지키라고 외쳤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자신도 몸을 피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승만은 적들의 허점을 찌르기 위해 뒤로 도망가는 대신, 대담하게 보부상 무리 가운데로 파고 들었다. 그리고는 배재학당 쪽으로 태연하게 걸었다.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승만이 배재학당에 나타나자,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학우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학생들은 다시 이승만을 앞세우고 종로로 나갔다. 이승만은 단상에 올라 밤새도록 연설했다. 독립협회 회원 김덕구가 용산에서 피살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시위대는 더욱 더 흥분했다. 다음날 거행된 그의 장례행렬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 중추원 의관이 되었다가 체포되다

1898년 11월 26일 고종은 개화파를 달래기 위해 왕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의회(議會) 비슷하게 운영하려는 뜻이 보였다. 그리고는 독립협회 회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중추원 의관 50명 가운데 25명에 대한 추천권을 독립협회에 맡겼다.

그에 따라 독립협회 회장인 윤치호가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23세의 젊은 이승만도 종9품을 받은 의관이 되었다. 개화파들은 그 기구를 통해 정부를 어느 정도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 공사관은 이들 개화파 민선 의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공작했다. 그래서 일본에 망명했던 친일파 청년들을 이승만에게 접근시켰다.

이승만도 일본의 문명개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적인 유신당의 청년들을 몇 차례 만났다. 그들 친일파 청년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헌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독립을 보

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도 전쟁을 해서 거대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원대한 침략 야욕을 알게 된 이승만은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마침내 기다리던 중추원이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이승만은 국정 개혁의 방법으로 일본에 망명한 개화파들을 사면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박영효(朴泳孝)를 중추원 의장에 임명할 것을 고종에게 건의했다. 고종은 격분했다. 그에게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는 역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종은 이승만이 박영효 일파의 사면과 등용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박영효를 중심으로하는 역적모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자신을 쫓아내고 황태자를 황제로 앉히려는, 아니면 군주제를 공화제로 바꾸려는 음모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고종은 1898년 12월 23일에 중추원을 해산하는 동시에, 독립협회 측 의관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협회 측 의관들은 모두 흩어져 몸을 숨겼다. 이승만도 남대문 근처의 미국 감리교 병원으로 숨었다.

저자 이주영(李柱野)

## 윤대영 목사 칼럼



### 윤대영 목사 부천계일교회

# 개 주인보다 못하다

르며,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죽창의 뿌리는 동학난이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혁명 일어날 때, 인민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섭고도 잔인한 도구가 죽창이었다. 공산주의가 발을 들여놓으면 먼저 양분화한다.

자본가(부르주아)와 노동자(프롤레타리아)이다. 노동자는 늘 자본가에게 자신들이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 빈곤감에 항상 분노와 증오가 화산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드디어는 머슴이 인민위원장이란 붉은 완장을 팔복에 찬 이후 분출되는 살기 화산은 괴물이 되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흉위병과 같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사정없이 죽여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을 완수해야 만족한다.

이 삶생과 광란의 난장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학습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문빠(문빠가 아니다. 북빠이다.) 대개문(대개문이 아니다. 대개북)이다. 유신시절 남대문에서 지게꾼이 '에이, 터러운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푸념 한 번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있었다. 며칠 후 다시 남대문 시장에 그 지게꾼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말이 없었다. 실어증이 걸린 것일까? 그 시대를 군사독재라고 규명하고 고문을 당하고, 최루탄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부르짖었다. '군사독재 물러가라.'였다.

그 이후 그들이 민주투사로 대접받으며, 각계에 자리매김을 했다. 언론, 학교, 정치, 사범, 종교까지 들어갔다. 드디어 그들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 이 정권의 수장인 문대통령께서 아산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한 상인에게 물었다. 장사 잘 되

느냐? 그 상인은 '거지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격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장사는 파탄이 났다. 문빠, 대개문들이 신상털기를 하고, 공포에 질리도록 횡포를 부리고 불매운동까지 한다고 했다.

반찬가게 주인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스스로 왔다. 상인은 그대로 솔직히 말했다. 장사가 안된다. 정말 힘들다. 누구의 탓인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한번도 시험해 보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조금만 참으면 뭔가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속여온지 3년, 이제는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우한 폐렴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 반찬가게 주인의 피눈물의 호소가 들릴 리가 없다. 권력에 귀가 막힌 자에게는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그 이후 문빠, 대개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마치못해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선거철이라 여론에 밀려서 겨우 한 마디 했다. '거지같다는 말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고, 그 당시 분위기는 좋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다시 변명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반찬가게의 주인에게 사과한 것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했다. 문대통령을 위해서 무조건 결사 항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와 함께 야외에 나가거나 집안에 있을 때 손이나 타인을 향해 개가 극성스러운 반응을 보이면, 개 주인은 먼저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어 손이나 타인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한 다음 물렸는가? 놀랐는가? 여쭙어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그리고 개를 나무라거나 아니면 개집으로 돌려놓아 문을 닫아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를 키우는 개 주인의 행동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개 주인보다도 못하다. 정중히 아산 반찬가게 주인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대통령이 반찬가게 주인에게 사과하는 것은 마땅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기 사람들이 몰고, 뜯고, 부수고 행패를 부렸으니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이 대개문, 문빠들에게도 사과하라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해야 마땅하다. 권스레 장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만든 것은 대통령이다. 도대체 개 주인보다 관리능력이 없다면 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이 나라를 망쳐놓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중국의 흉위병과 빼닮은 북빠와 대개북을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이라면 개가 주인을 마음대로 부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개 주인보다 못한 사람이 어찌 이 국민을 섬길까? 한숨만 나온다



#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연종목사 - 의정부시교회협동신문 대표



받아들이는,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본질적 형상의 존재로서는 아직 인간을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면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현실은 목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고 과정이며 다만 보조제일 뿐이다

주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실 혹은 상황은 인간에게는 언제나 대항점으로 다가와서 극복해야 하고 물리쳐야 하며 정복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서 무궁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참혹한 전쟁이나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때로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 현실이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목적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단지 복제품의 기계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현상은 다만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상황의 목적은 우리가 거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받아들이고 깊어지는 하나님에 일치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존재에게는 본질이 있다.

웨민1장은 분명하게 명시한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즐거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상황이 우리를 깊어지게 확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해석이 분명하면 방도가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한결교회 담임 이연종목사

이것이 목회본질이다

# 교회가 서 있는 이 시대를 읽고 '전략적 변혁' 힘쓸 때

21C 목회연구소장 김두현목사의 이것이 목회본질이라는 제목으로 16회 연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김두현 목사  
21C 목회연구소 소장

시대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로 공존한다. 시대를 모르는 교회는 스스로 쇠퇴한다. 시대를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시대와 동떨어진 낡은 행보 때문이다. 아직도 교권 권위 형식 제도에 갇혀 있다. 어린이 교육이나 말씀훈련 공간이 부족하는데도 원로목사실 원로장로실 당회실 성가대실을 만든다. 여전히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해 기득권을 보전하려 한다. 그러나 탈현대 시대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탈현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장벽이 무너진 탈현대성을 추구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상대주의가 있다.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에게는 기독교와 교회도 상대적일 뿐이다. 다원주의 특징도 보인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문화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상대주의는 혼합주의로 서로 벽을 허물고 해체해 같은 문화를 만들어 내며 동성애성전환 표현 유니섹스 뉴에이지 음악 등을 확산시킨다. 이렇게 탈현대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이 획일적인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다.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영향은 교회 주변을 떠도는 가나안 신자와 탈교회관을 만들어냈다. 영국 종교사회학자



▲ 21C 목회연구소가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연구소에서 개최한 처치플랜팅 모임에서 목회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인 그레이스 데이비 교수의 말처럼 '인 믿기는 하지만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believing without belonging) 특성을 가진 종교인을 양산해냈다. 데이비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점점 종교 제도나 형식, 의례, 가르침, 신조를 교회에 소속되 따르려 하지 않으며, 더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탈현대 시대 많은 젊은 기독교인이 케이블TV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휴대전화로 신앙생활을 대체한다. 종교를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개인적 기호로 자유롭게 선택해 편리와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탈제도화 신앙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같은 탈현대주의 시대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교회의 핵심 가치, 비전, 프레임, 설교, 사역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즉 전략적인 변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21C 목회연구소도 목회 본질을 지키며 '시대적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 없이 목회자들에게 강조한다. 매주 목회자들은 그룹별로 연구소에 모여 세계

적 교회의 흐름과 전략을 분석하고 탐구한다. 시대적, 세계적 교회들과 목회적으로 네트워크 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목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운동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미국처럼 시대적 교회를 세우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교회는 세계를 주도하며 이끄는 리더 교회로 시대마다 주류 교회를 형성했다. 1950~6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로버트 슐러(수정교회) 목사, 70~80년대 새들백교회(릭 워렌 목사)와 월로우크리교회(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주며 처치플랜팅을 주도하는 목회자는 팀 켈러(리더교회) 목사와 액츠29 네트워크(Acts29 network)를 이끄는 매트 쉐들러(빌리지교회) 목사다. 이들은 미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새로운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중심에서 변방으로, 주류에서 비주류로, 모델에서 모방으로 급격하게 교회 지형도 좌표에서 이탈하고 있다. 자연스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생태계는 미국교회보다 30~40년 뒤쳐져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 미국교회가 앞서 나가는가. 급변하는 시대 속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복음과 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리더들이 꾸준히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교회만을 거대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통해 교회를 보는 시야와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개념과 의식을 품는 목회자가 창조적 글로벌 리더다. 미국에선 위기마다 활화산처럼 바뀌어 쫓는 모험적인 교회들이 솟아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시대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어떻게 살든 자기 교회 부흥만 쟁기고 자기 교회 성도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80년대 목회 스타일로는 이제 희망과 미래를 찾기 힘들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간단하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자신과 겸손의 자세로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찾아 배우고 닦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시대적 교회를 세우는 건 역부족이다. 교회구조 신학 인프라 전략 매뉴얼 인력 연구문화 재정 자원 모든 분야에서 한국교회는 투자보다는 소비형 교회로 가고 있다. 게다가 생존에 급급한 교회 수가 70%를 넘고 있다.

21C 목회연구소가 매주 3회(월·화·목요일) 시대적 교회를 준비하며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기 위해 토론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임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김두현 목사 21세기 목회연구소장

## 사설

### 비상시국에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줄을 서던 사람들이 오늘은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하여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 시간동안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상에 적응이 정말 안되지 만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는 지금 자신을 보호해줄 있는 유일한 보호구(保護具)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꺼려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는 계절을 느끼며 반가워서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오랜 시간 수다를 떨던 일상들이 참 소중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 짓이 다 보이도록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던 시간이 그림이다. 주일을 앞둔 날에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예배를 자제 해달라는 협박성(?)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게 중한 시기에 그가짓 예배 한번 쉰다고 큰 일 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기독교 신문 미션란에 소개되는 유명 목회자들의 기도문을 읽어 보면 유난히도 강조하는 말이 '흠어진 교회'이다. 그들의 기도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모이는 교회'가 없이는 흠어지는 교회도 없다. 교회가 공공

의 선을 지켜야할 것과 세상과 고립된 곳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때는 화면을 들여다 보며 혼자서도 잘 하는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자라는 주장을 펼친다.

진정국면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때에 일찌감치 예배를 폐한다면 나중에는 공동 예배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기회가 아니라 점점 교회를 잊어 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흠어진 나그네들에게 권하였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불수록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하셨다.(히10:23-25)

제안한다. 교회가 위생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하게 하고 꼭 예배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게 하되 비대면(非對面)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래도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하면 되고 그들을 위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교회가 적극적 나서서 성도들의 건강관리와 영적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 계몽해야 할 것이다. 잊었는가?

지금은 온 교회가 40일 동안 모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다.

## 국가의 책무

희락교회 심재선목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듯이 국가 혹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혹은 정부가 마땅히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입니다. 국민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 위태로워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반만년 역사에 대략 구백 삼십 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5년 꼴로 전쟁이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임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봐도 전쟁 터지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집도 임시로 짓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대총대총 임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6.25전쟁 이후로는 어찌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미국과는 관계를 깨고 친북, 친중을 더 중요시하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공에 함께 하겠다고 하고 중국과는 공동운명체라고 하니 미국에서 볼 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미 친중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외강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제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이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산대를 내려오면서 모든 인민이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고 고기국에 쌀밥을 먹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의식주문제 해결이 안되어 탈북민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정부가 들어선 후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그리고 시간당 근로수당을 갑자기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친노

조를 하고 경영인들의 주장을 묵살함으로써 일자리는 줄어들고 폐업하고 빈가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는 급증하고 기업들도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외국으로 떠나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몇 십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늘어났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결과도 좋지 않으면 인정하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고 있으니 좋아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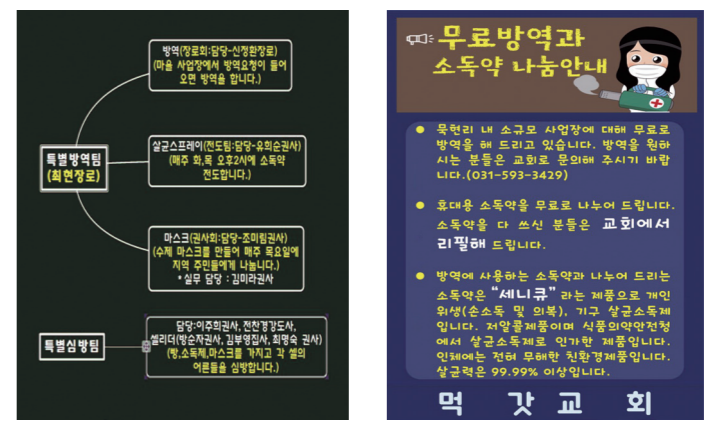
셋째로 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역사도 사실을 왜곡하면 안됩니다. 김일성과 북한은 미화시키고 대한민국은 형편없는 나라로 왜곡된 교육을 하면 안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하기 싫은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을 부모가 하라고 강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라고 양식과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교육 할 때에 동성애도 정상이고 여러 가지 성에 대하여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어서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여

자로 인정해야 하며 여성도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부터 남성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교육을 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성은 창조주께서 남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완전히 창조주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 때 행복이 있고 그것이 질서입니다.

넷째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됩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팬 가르기를 하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나라로 방향을 틀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안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자기를 맘대로 체제를 바꾸면 안됩니다. 국민을 안정되게 살도록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희락교회 심재선목사

##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란?



### ▲ 코로나-19로 무료방역과 소독약, 마스크를 지켜서와 나눔 사진-먹갓교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에 따라 경보 단계를 6단계로 분류한다. △ 1단계는 동물 사이의 전염단계 △ 2단계는 가족이나 야생동물에서 발견되어 소수의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 △ 3단계는 사람에게 전염되어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켰지만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은 상태 △ 4단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대유행의 위험이 현저히 커진 상태 4단계가 되면 해당 국가는 세계보건기구와 협의해 여행자 제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단계는 해당 전염병이 동일 권역(대륙)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상태 △ 6단계는 앞의 5단계를 넘어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전염병이 발생한 상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팬데믹이 되려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있으며,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절 감기 등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팬데믹 전염병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전염성이 없는 암 등의 질병은 유행하더라도 팬데믹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팬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WHO에서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 2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팬데믹을 경고하여 국제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 2020학년도 전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대학원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Reformed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인가)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00명	주/야	공동학위, 별도요강 참조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발음,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수시 접수  
 나. 전형방법 : ①서류 ②면접  
 다. 전형일자 : 상시 모집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하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통  
 5) 반명함판 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 특전

####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 장학혜택 - 재학 성적 우수자 :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특기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 유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M.Div) 졸업자는 대신 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 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 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우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 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 입학문의 : 010-5370-5944 / 010-9736-7179



<http://www.ds196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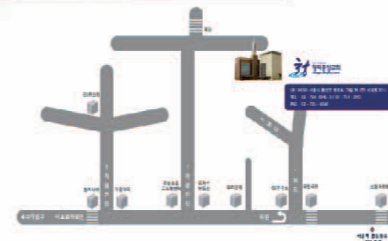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총회신학원

이사장 전광훈목사

총회장 강대석목사

학 장 김향주목사





세계의 중심 미국 남부의 수도 애틀랜타에 위치한

## Reformed University

1992년에 설립되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Global University를 지향하는 명문교입니다.

대한민국 연락처  
- 한국 제주 캠퍼스

문의 : 010-8972-1114

메일 : [jaesigp@hanmail.net](mailto:jaesigp@hanmail.net)

**본교 인증기관**

- ◎ USDE(미연방교육부)승인
- ◎ CHEA(고등교육학력인가기관)인증
- ◎ TRACS(미 기독교대학교 협회)의 정회원 승인
- ◎ GNPEC(조지아 주정부 교육부)승인
- ◎ DHS(미 국토안보부) F-1 VISA(국제유학생비자) 승인
- ◎ Federal Student Aid(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및 용자)승인

**진공과정**

- ◎ Bachelor of Arts in Business Administration(BABA)
- ◎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BATS)
- ◎ Master of Divinity(M.D)
-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 ◎ English Learning Support Program(ELSP)

전화 미국 770-232-2717  
한국 010-8972-1114

E-mail  
[jaesigp@hanmail.net](mailto:jaesigp@hanmail.net)

본교주소  
1724 Atkinson Rd.  
Lawrenceville, GA 3004

홈페이지  
[www.runiv.edu](http://www.runiv.edu)

**글로벌 캠퍼스**

- ◎ 한국 제주 캠퍼스

**특전**

- ◎ 국제유학생을 위한 SEVIS I-20발급
- ◎ 영주권, 시민권자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및 용자 가능
- ◎ F-1 VISA 유학생은 졸업 후 1년간 OPT(현장실습)가능

△ 개강일시 : 2020년4월4일(토) 오전 11시 청파중앙교회 내 총회신학교 대강당

△ 강의안내 : 매주 강의, 월요일은 저녁반, 토요일은 전일강의, 필요시 스마트강의(영상강의)